

1. “광야의 숨결” (2005년 위촉곡)

작곡/강상구

우리는 땅에서 자란 곡식을 먹고 땅을 밟으며 땅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도를 생각하면 푸근하고 가슴 넓은 평야가 저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드넓은 평야처럼 웅장하고 기개가 넘치고 온화하고 푸근한 마음의 평야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곡을 감상하실 때 드넓은 평야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길 기대하며...

2. 가야금협주곡 “뱃노래”

가야금/백은선, 작곡/황의중, 편곡/박위철

전체곡은 민요(뱃노래)를 주제로 하여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하며 웅장한 바다와 파도의 물결을 연상시킨 후 느린 중모리장단이 시작된다. 이어 단모리장단으로 변화를 준 뒤 굿거리 장단으로 재현된다.

3. 풍전산곡(風傳山曲) 바람이 전해준 산의 노래

통소/최 민, 작곡/계성원

통소는 팔음(八音)중 죽(竹)부에 속하는 우리의 전통 관악기이다. 통소는 현재 남한에서 전승이 거의 끊긴 상황이며, 다만 함경도 북청 지방의 사자놀이 반주형태로 많이 연주되고 있다.

오늘 연주하게될 통소도 북청사자놀이에 반주로 쓰이는 통소와 같은 것으로 산세가 험준하고 고원 지대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의 민요 "아스랑가", "함경도 농부가", "나질가"(벌목가), 시나위(심방곡)형태의 "신아우" 등으로 구성하였다. 굿거리, 세마치, 동살풀이, 휘모리 등 장단의 변화를 통해 통소의 거칠면서도 호소력 있는 음색과 흥겹고 신나는 국악관현악단이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4. 판소리와 관현악 “흥부 박타는 대목”

판소리/김세미, 편곡/김 선

제비가 흥부에게 보은 하고자 박씨 한 개를 몰아다가 주었는데, 가을이 되자 잘 여문 박을 거두어 켜게 되고 뜻밖에도 박 속에서는 온갖 눈부신 보물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대목으로 흥부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민중의 해학이 가득 담긴 대표적 소리를 관현악과 협연한다.

5. 전북의 산하 · 부안아리랑

소리/장문희, 문영주, 유재준, 박 건, 최경희, 이연정
합창/전북아리랑합창단, 작사/곡/유장영

아리랑은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전라북도 각 시군에도 각기 지역적 특색이 있는 아리랑이 하나씩 있 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년에 이어 이번 관현악단 순회공연에서도 지역별 아리랑을 하나씩 만들어 선보인다. 부안은 죽막동 유적지 등 해양문화가 발달한 곳이며, 농악놀이와 부풍물계와 같은 풍류음악 또한 활발히 전승되어 온 지역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부안 아리랑은 위도 띠밭놀이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한 곡이다.

6. “멋으로 사는 세상” (2002년 위촉곡)

작곡/이경섭

계절이 가져다주는 어렵פות한 기억들이 잔잔한 향기를 풍기듯... 시원스레 그리고 절정 없는 대화처럼 잔잔히 흐른다. 자지러지듯 한 형용하지 못하는 그 소리처럼... 춤꾼의 발 디딤에 장단을 실어내어 소박한 굿판을 벌여 놓은 듯이... 흥청거리며 자유로이 놀고 싶다.



지휘 | 유장영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의 농악〉-호남편-외 저서 다수
-전라북도문화재 전문위원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겸임교수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지휘



가야금 | 백은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초청공연 기아금 독주(202)
-전북대학교, 한국전통문화고 출강
-오감도 단원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단원



통소 | 최 민

-중국연변예술대학교 민족가악부 재(북한대금전공) 졸업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대학원) 졸업
-중국 제2회 문화예술정부장-문화장(文華獎)
-한국 최초로 통소협주곡 “만파식적의 노래” 협연
-KBS국악관현악단 등 여러 국악관현악단과 다수 협연



판소리 | 김세미

-전주 우석대학교 국악과 졸업
-전라북도무형문화재 2호(수궁가) 흥정택 선생 이수자
-수궁가, 흥보가, 민요발표회
-200남원춘향제 전국판소리명창경연대회 대상 (대통령상)
-전라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원